

**The History of
Early Christianity**

초대교회사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팔레스타인의 유대교

- “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탄생의 시기와 장소를 우연한 것 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.”
 - > 역사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 발견
 - >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기까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미리 준비하셨다(행 1:8)
- 교회는 주위 세계와 단절된 적이 없었다.
- ※ 처음 기독교신자들은 1세기 유대인들이었다.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1세기 (팔레스타인) 유대인
 - 고난과 투쟁의 경험 (cf. 배경사)
 - 주요 교역로의 교차점 <--- 제국들의 관심 :: 알렉산더 이후 -- 이집트와 시리아 패권
- 알렉산더의 정복
 - 이념에 기초한 정복
 - 헬라 문명으로 통일
 - * 헬레니즘으로 형성된 통일성은 그 후 로마의 정복, 그리고 복음의 전파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애증의 헬레니즘
 - 유용한 복음의 통로를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 유대인
 - 헬라 이념: 서로 다른 국가의 신을 ‘동일시’ 하고 ‘혼합’ 시키려는 경향
 - 유일신 신앙에 위해
 - 헬라화의 압력과 하나님 전통에 대한 유대인의 충실성 사이의 끊임 없는 대결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로마의 헬레니즘
 - 주위 세계를 교화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는 캠페인
 - > 도시들을 로마처럼 세우고 미화하는 것
 - 공공건물을 세우고 장식
 - > 일반적인 피정복민의 관습과 종교에 대한 로마 정책은 온건
 - > 마카비 후손의 권위 인정
 - :: 대제사장, 분봉왕 ----- 헤롯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유대인들의 반란
 - 헤롯의 헬라화 - 아우구스투스 기념 성전
 - > 사마리아, 가이사라
 - 성전 입구의 독수리상
 - 아르켈라우스(헤롯의 아들)에 대항한 반란
 - 로마 개입 요구 - 2000명 십자가 형 (행 5:37 가말리엘 언급)
 - AD 66년 대반란과 연결
 - AD 70년 예루살렘 함락
 - 마사다 요새 함락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종파
 - 바리새파: 로마 통치와 헬라 문명이 주는 물질적 유익을 누리지 못한 일반 대중의 당
 - * 최후의 부활과 천사의 존재 믿음
 - 사두개파: 보수적인 유대인
 - 부활과 천사는 상상의 발로/ 조작 주장
 - 로마인은 사두개인의 정치적 보수주의 선호 (로마인의 후원으로 유지된 성전)
 - 예수님과 그의 제자는 바리새파와 어울릴 기회에 노출
 - 바리새파와 마찰이 많은 원인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열심당
- 에세네파: 사해사본
 - 사회 격리 율법 준수 추구
 - 극단적 종말론
- ※ 두 가지 기본적인 믿음
 - 1) 윤리적 유일신 신앙 -- 바른 예배, 바른 관계
 - 2) 종말론적 소망
 - 메시아 대망론
 - 이스라엘 재건, 평화와 정의의 나라, 약속 성취
 - 쟁취의 방법: 무력 or 하나님의 전적인 임재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※ 가장 중요한 요건

--- 성전 멸망 후에도 생존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것은 어떤 종파인가.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디아스포라 유대교

-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지방 거주 유대인
 - 이미 구약시대부터 주거.
- 이집트 거주
 - BC 7세기 (유대교) 성전이 건축
 - 5세기 후에 또 다른 성전 건축
- 로마 제국 거주
 - 예수님 시대에 대도시에 큰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■ ‘디아스포라’ 란

- 분산(Dispersion) 유대인
- 조상 땅과의 강한 감정적, 종교적 유대감의 유대인

■ 디아스포라의 중요성

- 기독교 전파를 위해 가장 유용한 수단이 됨
- 예) LXX (70인역)
 - 히브리어 경전의 비 실용성, 헬라어 번역의 필요성
 - 알렉산드리아 (이집트)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■ 70인역의 효용성

- 초대교회를 위한 중요성
 - .그리스도 <---- 메시아를 가리키는 70인역 용어
 - .기독교 공동체가 독점하게 된 구약성서
 - 유대인 공동체가 기독교인이 쓰기에 부적합한 다른 역본을 만들어낸 결과
- 그 외 헬라 문화에서 가장 뛰어난 부분이 유대인의 고유 신앙과 부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운동
 - 이스라엘 역사를 헬라적 역사 기술 방식에 의해 다시 진술하려는 시도 성행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-- 필로의 경우

- . 예수님과 동시대인
- . 철학의 정수와 히브리 성서와 일치함을 증명
- . 철학자의 교훈과 성서의 교훈 일치 증명
- > 이러한 방식은 유대인의 신앙이 믿을 만한 신앙임을 이방세계에 보여주려 했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한 정보로-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그레코-로만 세계

- 통일성
 - 로마 제국은 지중해 연안에서 볼 수 없었던 통일성을 제공했다
 - 기원: 알렉산더의 방식
- 초대 교회의 형성
 - 로마 법률과 헬라 문화를 배경으로 형성
 - 로마 제국의 정치적 통일 덕분에 원활한 선교 여행에) 바울의 가장 큰 위험은 악천후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■ 통일성이 가져온 문제점

- 혼합주의
 - 종교통합
 - 황제 숭배
- 로마 정부는 각 지방 신은 동일한 신이라고 교육
 - 만신전(Pantheon)
- 도시의 광장과 시장에서의 혼합 작용
 - 혼합절충주의(syncretism) 유행
 - 유대인과 기독교인만 고집 센 광신자로 보임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■ 혼합주의의 양상

- ‘신비종교’ (mystery religion)
 - 올림푸스 신들보다 인격적
 - 이전의 사람들은 풍토/토착신 숭배
 - 그리스와 로마의 정복 이후
 - > 자신이 섬길 신을 선택할 수 있게 됨.
 - 출생에 의해서가 아닌 ‘입문’ 을 통해서 !!!
- 이집트 신화 도입, 그리스 제의, 인도-이란 미스라교 도입, 대모신(the Great Mother)
 - 교의 불분명: 유대교-기독교처럼 배타적이지 않으므로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박해의 요인
- 황제숭배: 통일과 충성의 방법 및 수단
- 사회 보편 질서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기독교와 철학
- 플라톤과 스토아주의 선호
- 플라톤과 소크라테스
 - > 고대의 신 비평, 완전하고 불변하는 지존의 존재
 - > 영혼 불멸
 - > 모든 유전하는 사물을 뛰어넘어 영원한 진리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가르쳐
- 기독교인은 자신들이 무식하고 비종교적이라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이론을 사용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스토아주의: 플라톤주의보다 후대, 고상한 윤리 기준
- 만물이 불로부터 기인- 물질주의(자)
- 인간은 이 불변의 법칙에 순응해야 -> 결정론
- 자
- 기독교가 등장할 즈음 스토아주의 변질
 - > 종교적 색채
- 현명한 인간은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
- 이성에 의해 주관되는 보편적 법칙 조화
- 화합된 정신 소유자 -> 아파테이아!
- 통찰, 용기, 극기, 정의 <---(무통)
- 스토아형 '새로운 인종' = 기독교인(보편적 통일)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예루살렘 교회

- 사도행전-- 예루살렘에 강력한 교회가-
 - 기독교 공동체의 후기 역사 기록 부재
 - (다른 문헌에서 정보 취득- 다른 지역 교회)
- 신약 전체를 종합해야 최초의 공동체 윤곽
 - 1) 베드로의 용기와 웅변 (이방 신자에 대한 불확실한 태도 상쇄)
 - 2) 헬라파 유대인의 히브리파 사람 원망
 - > 교회적인 이방인 신자와의 갈등은 아니다
 - > 유대인과 유대인의 대결
 - 3) 일곱 집사(헬라 이름)-- 교회 내 헬라파 영향력 강화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4) 성전에 관한 태도 - 스테반
 - 반 헬라파 유대인이 스테반 처형
- 5) 태형 후 석방되어 설교를 금지 당한 베드로와 요한
 - 스테반의 처형과 대조적
 -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전 신앙
 - 이 사건은 최초의 박해 운곽
 - > 헬라파 기독교인을 겨냥한
 - > 히브리파는 안전
- 6) 사도행전 12장 - 헤롯이 야고보 처형
 - 베드로 체포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7) 스테반 순교 후,
 - 빌립의 사마리아에 교회 세운 이야기
 - >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새 공동체 운영 감독
 - >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어도 권위 인정
- 8) 바울의 등장/ 관심
 - > 예루살렘 교회 소외
 - > 헬라파 유대인이 다리 놓은 교회, 유대 기독교 공동체 능가
 - ※ 그러나 그 면모를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최초의 교회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.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종교 생활
 - 최초의 기독교인 인식
 - 스스로 새 종교의 신도라 여기지 않음 (유대교인)
 - > 유대교의 부정미 아닌, 메시아 시대의 도래 확신
 - “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해 핍박 받음” (바울의 인식)
 - > 예루살렘 기독교인이 안식일 + 성전 참석 사유
 - + 부활 기념 주일 첫날 추가
 -
 -
- 성찬= 주님의 고난 (x) 새로운 시대의 여명/승리 (o)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처음 기독교인은 월요일과 목요일(유대교) 아닌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 (배반과 십자가 기념)
- 초대교회의 제1권위 ---- 사도 (베드로와 요한 주도)
 - * 행전과 갈라디아서 입
- 중 -- 주님의 형제 야고보 ---- * 고전 15:7에서 증언
 - * 바울과의 연관성
 - *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
 - 초대 감독 (?)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유대인 교회의 쇠퇴
 - 야고보A(요한의 형제 야고보) 순교
 - 베드로 체포 (헤롯 아그립바)
 - 야고보B(주의 형제 야고보) 순교
 - 요단강 건너편 펠라로 교회 이주
 - 유대인의 박해가 아닌 로마인의 의심을 피하고자 (새 종교 운동의 정체에 대한 로마의 의심)
 - AD 66년 대대적인 반란
 - 70년 예루살렘 멸망
 - 야고보B가 죽은 후에는 주의 다른 형제 시므온이 리더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시므온도 처형
- 옛 유대인 교회의 고립
- AD 135년 교회 주도권이 이방인 신자에게 완전히 양도됨
- 잔존 유대교 기독교 공동체의 독자 노선
 - 이들의 모습은 후대에 이단으로 비취짐 예) 에비온파 - 율법 준수, 할례
-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 -- 로마 전역의 유대인에게 호소
 - 유대교의 완성
- (이방) 기독교인의 유대교 근원으로 돌아가는 경향성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이방선교

- 헬라파 기독교인
 - 유대인이면서 헬라문화에 개방적인 태도
 - 우선적인 박해의 대상 (탈 예루살렘)
 - 참조. 행 8:1- 사마리아 선교 (빌립), 마술사 시몬 회심
 - 베드로와 요한의 방문
 - 9:1- 도주 기독교인 (다마스커스로)
 - 11:19- 스테반 순교 후 - 페니키아, 사이프러스

아디옥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* 에티오피아 내시의 회심 (비 유대인 전도)
 - 비 유대인을 기꺼이 받아들여려는 교회 정책
 -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 (사도의 인준)
 - 안디옥 상황 (사마리아와 유사) - 바나바 파송
 - > 모교회(예루살렘)이 이방인 사역 인정
 - 행전 15:28-29 Vs. 바울의 서신 차이점
 - 엄격한 율법 준행 고수자와의 투쟁
- ※ 결과
 - 최초의 이방인 개종자는 유대교와 이질적이지 않음
 - '하나님을 경외하는 자' ?- 개종자 (x)
 - 바울 영입. (하나님 경외자)로서 하나님의 백성 지위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바울의 사역
 -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 다소(Tarsus)로 간 이유 불명
 - 안디옥에서 1년 동역 -- 최초의 그리스도인 칭호
 - 그 후 3회의 전도여행
 - 구브로와 소아시아, 헬라와 로마, (스페인 전도)
 - 바울이 해당 지역에 전도했다는 것이
그 지역 그리스도인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.
(예, 이탈리아 보디올 지역)
 -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,
알렉산드리아 유대인 아볼로는 에베소와 고린도--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바울의 공헌
 - 교회를 세운 것 Vs. 서신을 남긴 것
기독교 형성의 영향력
 - 새 도시에 도착 --- > 회당과 유대인 공동체
--- > 새로운 종교 전파 (x)
이שראל 약속의 완성 (o)
---> 예수님 부활을 통한 메시아 시대
 - 호소력의 증대: 무할레
음식규정을 따르지 않고도 하나님 백성
 - 예배 생활의 변화 -- > 회당 축출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회당 축출 후 개인집에서 회집
- 기독교 신앙과 윤리적 요소들
 - 유일신 하나님 예배, 만물 창조, 순결, 정직
 - 이방인 개종자 증대 --> 세례와 학습
 - ‘말씀 예배’ 와 ‘성찬예배’ 의 구별
(세례준비자) (세례자) <----- 중요
1-3세기 지

속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사실과 전설(전승)
 -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죽음 (사도행전)
바울, 베드로, 다른 사도들의 결말은? (전승)
 - * 거꾸로 달려 죽은 베드로 (cf. 요 21:18-19)
 - * 참수당한 바울, 바울의 스페인 전도(?)
 - * 요한의 죽음, 끓는 기름 순교, 밧모섬, 에베소 임종.
Cf. 히에라폴리스의 파피아스 기록
:: 사도 요한과 밧모 섬의 에베소 장로 요한.
계시록의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자 x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사도들의 후기 생애가 미궁에 빠진 이유
 - :: 각 교회들이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기 시작함
 - 알렉산드리아 교회 마가 창립설
 - 콘스탄티노플 교회 빌립 장립설
 - 스페인 인도 기독교 기원: 야고보 전설
 - 기둥 위의 성모설
 - 콤모스텔라 매장설
 - 스페인 통일에 기여 ←-----
 - 도마의 인도 선교설 (도마 행전)